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 사람 낚는 어부 (마 4:18-22)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1.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부가 다섯 명, 세리가 한 명, 그 나머지는 직업이 확실치 않습니다. 한 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실수투성며 다혈질적인 그의 당시 모습을 보지 않고 바위처럼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게 될 그의 미래 모습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증거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것을 주님은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 2.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19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최고의 선물과 가장 큰 영광도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 하나님의 목적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 3.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20, 22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지금 당장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신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명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 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도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 즉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하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Fishers of Men (Matt 4:18-22)

If we hear one's voice and see their behavior, we can understand what kind of values they have and what they think is important. When we read this text, we are able to understand what Jesus thinks is important and what He is very interested in.

### 1. The way Jesus adopts man as His disciple differs from the world.

Jesus adopted people as His disciples: five fishermen, one tax collector, and others unknown. In the world, these people who became Jesus' disciples were not qualified to receive such an honor. However, He did not call them as His disciples with a worldly view point, but a spiritual one.

When Jesus adopted Peter as His disciple, Jesus did not see the time when Peter was full of mistakes and a hot blooded fellow but He saw his future becoming a solid prop like a rock to build His house on and be used by God's work. Jesus already realized that a disorderly crowd, just like Peter should become a faithful messenger who was willing to die as a martyr for the Gospel and witness of Jesus in the end.

### 2. The greatest concern of Jesus is to save one's spirit.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v. 19).

By starting His public life, the reason why Jesus adopted someone as His disciple is because men are important. The ultimate purpose of which Jesus called His disciples is to save men, to bring them up, and to set a kingdom goal in their life. Jesus devotes His concern on men more than anything else. The greatest gift and glory that He promised was to catch and save men.

A missionary, Hudson Taylor to China says, “God's way is men, and His purpose is men.”

### 3. Those who are called by the Lord must know what it means to give up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and immediately they left the boat and their father and followed him” (vs. 20, 22).

The disciples who were called by Jesus followed Him by quitting their own work at once. For all that, it does not mean that we right away give up our work and enter a university of theology. Jesus called us and sent us to our home, to our workplace, and in an environment to save spirits there.

### My beloved Christians!

Our Jesus considers a person's spirit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world and we never forget that His ultimate purpose of calling us is to save the spirits of the world.

Jesus tries to make us live our most beautiful, greatest, and most wonderful happiness that a man can enjoy, in other words, to be fishers of men. By accepting Jesus' calling at once and guiding many people around you to Jesus Christ,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come like a star in the sky.

# 2012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안에 진행 중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 (마5:13-16, 뱀전2:11-12) -

2012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안에서 진행 중이다.

이미 영어예배부는 은혜 중에 마쳤으며 어제와 오늘 양일간 사랑부도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협조 바란다.

이번 주는 대학부 수련회가 아가페타운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많은 대학부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 우리교회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이 임하며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012년 7.27(금)~29(주일)	서울교회	세상을 위하여 반짝아이! 썹~썹~	최인애 전도사
유치부			나는 반짝 아이예요	박다행 전도사
유년부			나의 삶이 수께 영광!	김민성 목사
초등부			FOR GOD!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나를 보내소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축복하소서!	노정호 목사
고등부	7.26(목)~28(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이종진 목사
청년1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부르심	박노철 목사 박진아 목사
청년2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KNOWING GOD	박노철 목사 오세광 목사
디아스포라	8.2(목)~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박광열 목사
에바다	7.31(화)~8.1(수)	아가페타운	세상의 빛과 소금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8.14(화)~15(수)	아가페타운	부과 소금된 가정	현상은 목사

## 장년부 성경공부 개강

오늘 1부 예배후 본당 -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강의



장년부(지도:김철홍 목사 부장: 김재근 집사)가 그 동안의 방학을 마치고 7월 15일(주) 주일1부예배 후 본당 2층에서 개강한다.

강사로는 지난 학기와 같이 김철홍 목사가 담당하며 2학기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립보서를 공부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 바란다.

## 2012 열린 바자 일정 확정 되다

9월 20일(목)~21일(금) 2일간,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사랑과 섬김, 나눔과 감동의 축제, 2012 열린 바자 (위원장 : 김광신 장로)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바자는 생명의 우물 파기, 미자립교회 돕기, 이웃 돕기, 탈북난민 돕기, 아가페 타운 건립을 목표로 하며 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바자는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각 가정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소장품들을 출품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소외된 장애인과 노인들)과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이며 또한 계속 되는 아가페 타운 건축을 위해 사용한다.

서울교회 앞마당과 1층 로비, 7층과 8층 식당 그리고 한티공원에서 열리는 바자는 주로 성도들의 기증품 위주로 판매되며 추석 선물 등을 위하여 농수산 특산품을 준비할 예정이므로 성도들은 이번 바자 기간 동안 추석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더욱 좋다.

이번 바자를 위해 교구에서는 미리 미리 준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바자는 기간 중 오전 10시에 개장하여 오후 7시에

폐장한다. 바자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조 직

- 대회장 : 박노철 목사
- 위원장 : 김광신 장로
- 차 장 : 최광성 집사
- 기획분과 : 백승갑 / 권오철, 김홍기, 신부식, 장상국
- 재정분과 : 송인수 / 이안순, 정경자, 이경란
- 판매관리분과 : 예완식 / 진승근, 강낙훈, 김영희1, 남태순, 김선영1, 정미연, 최금숙, 최종희, 구진경
- 특판분과 : 은기장 / 안홍희, 이준호, 장창수, 신현일
- 설의분과 : 김삼태 / 이종창, 정수환, 김광태, 황병석, 박명철1, 정진문
- 홍보분과 : 서춘식 / 유은경, 최영철, 오주명, 최진경
- 시설관리분과 : 이동만 / 제1, 제2스데반회 회원
- 차량분과 : 최규초 / 김광룡, 이남성, 김해수, 김종철1, 강택근, 김정호, 박충구, 남정열

## 2012년 2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 7월 17일(화)

수여식: 8월 12일(주)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이영기 장로)는 2012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 특기자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이상), 본교회 등록된 지 1년 이상(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7월 17일(화)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

7월21일(토) 오전11시 8층 만나홀

70세 이상의 서울교회 어르신들과 교회 근처 지역주민 어르신들을 모신 사랑의 대잔치가 7월 21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만나홀(8층)에서 열린다. 이 사랑의 대잔치는 스데반회(제1회장 : 최규초 집사, 제2회장 : 이동만 집사)가 주최하고 70인전도대가 협력하는 행사로서,

- 1부 : 감사예배, 2부 : 사랑의 대잔치, 3부 : 식탁 교제로 진행된다.

특히 제2부 사랑의 대잔치는 우리교회 부목사님들과 은빛찬양대의 특송을 포함하여 교회행사 전문MC에 의한 예년과 달라진 새롭고 재미있는 변화의 방식을 도입하셔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번 행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를 "어르신을 섬기는 효문화"에 정착시키고, 은교회 세대간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셔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섬김의 기쁨, 세대간 전통과 갱신을 통한 서울교회 부흥을 이루는 전기가 되는 행사가 되길 기도하며 많은 참여바란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줄리아드 음대 KCCC 앙상블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줄리아드 음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박선영(작곡전공) 성도가 편곡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등 네곡을 김새롬(4학년,클라리넷전공), 민지혜(4학년,플룻전공), 조푸름(4학년,성악전공/소프라노), 한선미(4학년,피아노전공),이승연(2학년,피아노전공),박선영(대학원,바이올린학생)의 앙상블로 하나님께 드린다.

✉ 편지왔어요

지난 6월1일 체코에서 Noc Kostelu(교회의 밤)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체코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저희가 소속하는 프라하 교빌리쉬교회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다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교빌리쉬교회는 체코, 한국, 일본 교우가 각기 찬양과 악기 연주 등의 순서를 가졌고, 교회 안 밖의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일본어예배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 수적으로 미약하지만, 공동체 교우 외에 일본인 학교 어머니들, 음악유학생들의 참가로 성의껏 준비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세 공동체의 연합 찬양으로 헨델의 '할렐루야'와 복음성가 '내가 만민 중에'를 한 마음으로 불러 주 안에서 하나 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 영적인 부분에 방해가 있을 때 지혜롭게 감당하고 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 주재원/유학생뿐만 아니라 체코에 오래 사는 교민들에게 전도의 길이 열리도록.
-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Bohnice병원에서의 음악연주 봉사를 위해서.
- 어머니 노래 교실을 통해서 참석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체코에서  
손신일 · 민매라 선교사

Noc Kostelu

✉ 대학부 여름수련회

<One Thing>에 집중하기

2012년 여름, 저희 대학부는 <One Thing>이라는 주제로 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자는 의미로 우리의 모든 것을 <One Thing>에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One Thing>으로 하나 되었을 때, 대학부 공동체 또한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학부 여러분, <One Thing>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 분과의 만남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있어 <One Thing>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7월 18일(수)~21(토) 오후4시 교회 1층 출발
- 대 상 : 88~93포대 (20~25살)
- 장 소 : 아가페타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505-10)
- 회 비 : 40,000원
- 문 의 : 010-8727-1904(허승일 전도사)  
010-7181-9536 (유은수 회장)

✉ 편지왔어요

서광중 · 이성일 선교사(인도네시아)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서울교회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고대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곳에서는 벌써부터 본인의 집을 단기 선교팀의 숙소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분, 이번 사역을 위해서 자원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미 여럿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단기 선교팀 사역을 준비하시느라 시간을 쪼개시는 분들과 일년 중 일주일의 휴가를 이곳에서 힘들고 바쁜 사역을 하시겠다고 헌신하시는 분들 등등의 사연들을 들으며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저희와 함께 단기 선교팀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저희도 감동의 물결에 휩싸이며 은혜가 넘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시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서울교회의 단기 선교팀은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외곽지역인 빈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의료혜택을 보기 어려운 곳, 미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곳, 어린이들은 다 떨어진 공하나만 있어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에 서울교회의 단기 선교팀의 사역은 이슬람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한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의 사역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슬람인 마을의 읍장과 반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지

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는 이슬람인들의 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회 단기 선교팀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봉사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슴에 안고 눈으로, 손으로, 그리고 발로 저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의 육적인 아픔과 갈망을 채워줌으로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고 예뻐지고 싶은 갈망도 멀리하고 오로지 일을 해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붕대로 감싸주고 주저앉은 자들을 안아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 타국에서 오는 검은 머리, 눈이 작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오늘 내일 손꼽아 기다리는 저들의 갈망에 날짜가 하루 하루가 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기도제목

- 인도네시아 모슬렘들의 영적변화를 위해서
- 육적, 영적으로 아픈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 사역 기간 동안 이슬람인들의 방해를 받지 받지 않기 위해서
- 입국심사와 세관통관이 무사히 잘 통과되도록
- 단기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고 쉽 없는 기도를 위해서
- 자원봉사자들과 일을 추진하는 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 버스 기사와 현지 봉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 83년만에 우상의 늪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 신성균 집사(13교구)

저희 집은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노경선 성도는 떡을 해서 집안 곳곳에 놓고 복달라고 빌으셨을 뿐 아니라 큰 나무, 큰 산, 큰 강 등 그야말로 온갖 우상에 매달리시어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절에 가실 때에는 추운 겨울에도 장독대에서 목욕재계를 하시고 새벽에 일찍 절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저 또한 아들 둘 잔치를 절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제 아들을 통하여 저를 먼저 2006년 9월 24일 서울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5월 24일 석가탄신일에 충남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절에 못가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이제는 절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 드리는 순간 딸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조민자 집사가 발등에 그릇이 떨어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 중입니다. 충격으로 발등 인대가 끊

어진 아내는 몇 개월 동안 제 등에 업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교회,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태도가 굳어지셨고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엉뚱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2년 5월 27일 저희 어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그러니까 83년만에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예배도 잘 드리시고 찬양예배, 흥해작전도 참석하시고 새가족부도 수료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요즘 하나님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후 5시에 부르신 일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도 오후 5시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 2독 : 윤 윤 권사(3교구) 강영순 권사(6교구) 서영세 권사(6교구)
- \* 1독 : 박경희 권사(1교구) 채덕희 권사(8교구) 오혜경 집사(13교구) 문남희 성도(15교구) 김성환 중등부3(13교구)

## 주일 3부 예배(임마누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임명 금주부터 김여정 선생

우리교회는 그동안 주일 3부 예배(임마누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하던 최수황 집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김여정 선생을 임명하였다.

김여정 선생은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를 졸업하고 Northwstem University에서

음악석사(파이프오르간 전공) 및 음악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였으며 수차례 오르간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지난해 귀국하여 가족이 서울교회를 섬기고 있다.

\* 최수황 집사는 앞으로 예비오르가니스트로 섬기게 된다.

### 나눔의 집, 상시운영

나눔의 집 운영은 목회자 세미나 기간 뿐 아니라 1년간 상시 운영되고 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수요일 예배후 나눔의 집을 이용하시면 된다.

아울러 나눔의 집에서는 기증품도 기다리고 있다.



### 에스더 여전도회 농촌 봉사 7월 20일(금)

에스더 여전도회(회장 : 김진희 권사)가 7월 20일(금) 후원교회인 춘천동산교회(김창부 목사)로 농촌 봉사를 떠난다. 이 날 에스더여전도회는 어르신 동네 잔치와 일일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월16일(월) 종교개혁500명저번역위원 임원회를 소집한다.
- 공연 : 신모란 성도(15교구) “김동규와 함께 하는 텐스프라노” 7월 19일(목)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 주간식당봉사 : 이삭선교회(7.15) 도르가전도회(7.22)
- 금주의 식사 : 유 신 집사 가정 주동재 집사 김동진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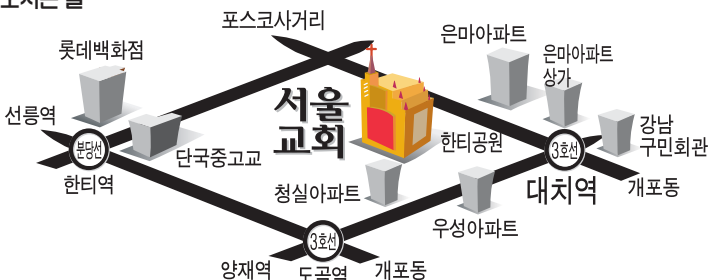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충만의 역사와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임하도록
2. 7/21(토)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를 통해서 우리교회 뿐만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이 큰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3. 카자흐스탄의 양재성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복음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 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